DOI http://dx.doi.org/10.22912/dgsh.2023..77.371

〈일반논문〉

골튼(F. Galton)의 정상(normality) 개념과 우생학(eugenics) 그리고 성(性)

김 호 연 *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골튼의 정규분포 활용과 정상(normality)의 과학적 개념화
Ⅲ. 정상 신체, 지능, 집단, 그리고 우생학
Ⅳ. 우생학, 정상 신체, 그리고 성(性)
Ⅴ. 나오며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골튼(F. Galton)의 정상(normality) 개념과 우생학(eugenics), 그리고 성(性)의 상관관계를 밝혀보는 것이다. 이로써 필자는 지금-여기에서도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심상에 자리를 잡고 있는 정상과 병리, 그리고 이와 연관된 우월과 열등의 구분 짓기가 잔혹한 역사의 흔적을 남겼던 과거 우생학의 논리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음을 성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골튼의 정규분포 활용과 정상의 과학적 개념화 그리고 그 함의를, 3장에서는 정상 신체, 지능(intelligence), 집단, 그리고 우생학의 상관관계를, 4장에서는 이에 대한 사례로서 성(sex)을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골튼은 정상이란 것은 표준에 불과하고, 그것은

*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미래인문학융합학부 부교수

www.kci.go.kr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20세기 전환기에 우생학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정상 신체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했고, 이들이야말로 국가의 시민으로서 자격을 갖춘 존재들이라고 생각했다. 골튼의 우생학은 이런 존재들을 출산하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으나, 결국 자격을 갖추지 못한, 즉 부적격한 존재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폭력적인 도구로 기능했다. 따라서 우리가 우생학-정상-신체를 연결하여 우리의 다양한 실존적 양태(성-장애-계급-인종 등)를 살펴보는 것은, 누가 과연 정상 신체를 가진 인간인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할 국가-사회의 본질과 그 모습이 어떠해야하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과정에 다름 아닐 것이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체화되었을 수 있는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구분의 바탕에 우생학적 원리와 그에 기초한 사고방식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우생학의 역사를 끊임없이 살펴야만 하는 이유일 것이다.

□ 주제어
정규분포, 정상, 신체, 지능, 집단, 성, 우생학, 골튼

I. 들어가며

이 글의 목적은 우생학(eugenics)의 창시자인 골튼(F. Galton)의 정상(normality) 개념과 우생학, 그리고 성(性)의 상관관계를 밝혀보려는 것이다. 이로써 필자는 지금-여기에서도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심상에 자리를 잡고 있는 정상과 병리, 이와 연관된 우월과 열등의 구분 짓기가 잔혹한 역사의 흔적을 남겼던 과거 우생학의 자장 안에 있음을 성찰해보고자 한다.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물학적 특질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www.kci.go.kr

있을까? 아마도 대부분은 어렴풋이만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설사 안다고 할지라도, 모호하기 십상이다. 정상과 병리, 우월과 열등, 그리고 적격자(the fit)와 부적격자(the unfit)라는 이분법적 사유에 기초한 구분 짓기는 실제로, 그럴싸한 그리고 거짓된 근거와 판단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았던 적이 많았다. 이는 비인도적인 편견과 차별의 역사로 이어지기도 했다. 인간 행동과 본성에 대한 설명들, 그것이 유전주의든 환경주의든, 설사 그 입장들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인정한다손치더라도, 그 증거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측면이 많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중후반 이후 서구 여러 나라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정상과 병리, 우월과 열등, 그리고 적격자와 부적격자라는 이분법적 사유에 기초한 인간에 대한 구분 짓기는 여전한 듯하다. 필자는 이러한 구분 짓기의 근거와 정당화를 과학의 이름으로, 또 과학에 대한 믿음의 성장과 비례하여 통념처럼 강화하는데 골튼의 우생학이 주요한 역할을 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 알다시피, 우생학은 집단주의에 기초하여 국가 적합성이나 국가 효율을 위한 정책으로 기능한 과학이자 이념이었다. 국가 적합성이나 국가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구 집단의 질적 관리가 필수적이었고, 이는 정상 신체를 가진 사람의 수를 늘림(포지티브 우생학)과 동시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제거(네거티브 우생학)함으로써 가능할 것이었다.[2)] 이는 우생학이 그 탄생부터

1) Carlson, Elof Axel, *The Unfit: A History of a Bad Idea*, N.Y.: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Press, 2001, p. 6.

2) 우생학은 그 실행 목적과 방법에 따라 positive/negative eugenics으로 나눌 수 있다. 필자는 적극적/소극적이나 긍정적/부정적과 같은 가치판단이 적재될 수 있는 번역 용어보다는 별도의 번역어 없이 우수한 형질이라고 판단한 생물학적 질을 개선하려는 우생학은 포지티브 우생학(positive eugenics)으로, 우수하지 못한 형질을 제거하려는 우생학은 네거티브 우생학(negative eugenics)으로 표현해왔다. 우생학이 선택적인 생식 또는 선택과 배제의 원리를 그 기초로 삼고 있기에 포지티브이

www.kci.go.kr

정상이란 화두에 천착하여, 그것을 표현하고 판명할 수 있는 신체를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한 까닭이었다. 우생학자들이 말하는 바람직한 사람들이란 정상 신체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이들이야말로 사회의 시민이 될 자격이 있는 적격한 존재였으며, 그런 존재들로 구성된 이상적인 국가를 그려낸 것이 골튼의 우생학 프로젝트였다.[3] 이 때문에 골튼의 우생학은 집단주의적 차원에서 공중보건·성(性)·인종(이민)·장애 등과 연관하여 전체 인구 집단의 신체(몸)-건강을 정상적인 상태로 관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기획과 연관된 사안이었고, 그 결과 비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존재들에게는 입국 거부나 결혼 금지 및 강제 불임 수술이라는 배제의 원리가 실행되었다. 어떻게 효율적이고 더 나은 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그 해법에 대한 논의는 우생학이 유행하던 시기는 물론이고, 오늘날에도 중요한 사안이다. 이런 점에서 우생학은 성찰의 현재적 원리인 역사학의 주된 논제일 수밖에 없고, 지금-여기 우리의 통념이나 세계관을 성찰해볼 수 있는 좋은 테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우생학의 창시자인 골튼이 상정한 정상의 개념은 무엇이고, 정상 신체란 어떤 상태이며, 그것은 현실에서 인간 실존과 관련한 여러 사안들, 특히 성(性)과 생식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나아가 골튼의 정상 개념과 우생학의 논리가 대중의 사고방식을 지배하면서 하나의 국가 정책으로까지 기능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여기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골튼이 통계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상정한 정상 개념과 우생학, 그리고 성의 상관관계를 밝혀보고, 이를 통해 인간 존재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인식을 성찰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건 네거티브이건 간에 그것은 성찰적 시선이 요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생론자들이 주장하는 우수한/열등한 형질의 판단 근거는 여전히 불명확한 것이기도 하다.

3) 김호연, 『유전의 정치학, 우생학: 강제 불임에서 나치의 대학살까지』, 단비, 2020.

www.kci.go.kr

한다.

Ⅱ. 골튼의 정규분포 활용과 정상(normality)의 과학적 개념화

골튼은 우생학을 과학으로 정립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그는 통계학적 방법론인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근대 통계학의 시초로 꼽히는 생물계측학(biometrics)을 창안했다. 당시 골튼은 진화와 유전 그리고 변이의 연속성 문제를 수학적인 통계학적 방법론을 통해 규명할 수 있다면, 자신의 주장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이를 위해 골튼은 생물 개체 사이의 유사성이 갖는 상관관계를 수치화하는 시도를 전개했다.[4] 생물계측학은 이 과정에서 탄생한 과학적 방법론이었고, 골튼은 이것이 우생학을 비롯한 자신의 주장을 과학적 차원의 논의일 뿐만 아니라 통계 자료에 입각한 객관성까지 담보한 것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19세기 후반 서구 사회에서 진행된 과학에 대한 믿음의 성장과 그것의 특성, 특히 정량화의 문제와 관련한 것이기도 했다. 다 알다시피, 19세기 후반 서구에서는 과학의 발전과 그에 대한 믿음이 증폭되었고, 이런 흐름 속에서 인간 생식 문제도 대중의 주요한 관심 사안이 되었다. 이는 인간 생식 문제가 국가 효율이나 사회 진보와 연관된 문제였기 때문이었고, 이를 과학이 해결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커졌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관심과 실행의 기폭제가 된 것 가운

4) Cowan, Ruth Schwartz, "Francis Galton's Statistical Ideas: The Influence of Eugenics," *Isis* 63, 1972, pp. 509-528.

www.kci.go.kr

데 하나가 맬서스(T. R. Malthus, 1766-1834)의 인구담론이었다.[5] 특별히 맬서스의 수량적 묘사는 우생학의 탄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식량공급에 비해 인구 증가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는 맬서스의 주장은 지구의 자원이 제한적이며, 이는 인간 사회의 빈곤을 야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생필품을 둘러싼 인간 종 사이의 경쟁이 야기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보여주었다. 인간 사회가 생존경쟁을 통해 조절될 것이라는 맬서스의 주장은 다윈(Charles Darwin, 1809-1882)이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 이론을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했다.[6] 이는 수량화로 특징화할 수 있는 근대 과학의 특성과 부합하는 사항이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양적인 관심을 보였던 우생학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사안이다. 맬서스로부터 기인한 수량적 묘사, 즉 정량화는 엄밀한 측정에 기초한 숫자는 논박할 수 없는 정확성을 보증하고 주관적인 사변으로부터 뉴턴 물리학과 등가인 진정한 과학으로의 이행을 보장한다는 신념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뇌의 크기와 지능의 상관관계를 정량적 표현을 통해 객관적인 것으로 주장했던 폴 브로카(Paul Broca, 1824-1880)처럼 19세기 중후반 서구에서 숫자의 마력(정량화)은 지적 엘리트에게 자신의 주장을 과학적인 것으로 보이도록 하는 주요한 수단이자 방법이었다. 이는 자연에 대한 인식론적 변화를 추동하면서 대중에게도 자연에 대한 정량적인 설명과 그것을 과학성의 기본적인 지표로 인식되는 계기를 낳았다.[7] 골튼이 우생학을 창안하며, 그 핵심

5) 김호연, 「서구 우생 담론의 역사 I- 우생학(eugenics)과의 연관을 중심으로」, 『동국사학』 72, 2021, 353-355쪽.

6) Young, Robert M., "Malthus and the Evolutionists: The Common Context of Biological and Social Theory," *Past & Present* 43, 1969, pp. 109-145; Herbert, Sandra , "Darwin, Malthus, and Selection," *Journal of the History of Biology* 4, 1971, pp. 209-217; Ruse, Michael, "Charles Darwin and Artificial Selection,"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36, 1975, pp. 339-350.

7) 숫자의 마력과 과학의 특성, 그리고 그에 대한 골튼이나 풀 브로카의 사례에 대해서

www.kci.go.kr

에 생식 통제, 즉 출산율 조절을 거론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른바 적격자의 출산율은 높이고, 부적격자의 출산은 강제로라도 제한해야한다는 주장 말이다.[8)]

골튼은 정상 신체를 가진 존재들을 판별하기 위해 정규분포를 활용하고, 이를 합성 초상화(composite portraiture) 실험을 통해 증명하려 했다. 당시 골튼은 개별 초상화에 부분 노출을 시킨 뒤, 하나의 판 위에 여러 개의 초상화를 겹치는 방식으로 합성 초상화 실험을 전개했다. 각기 다른 초상화를 여러 개 겹치면, 많이 겹치는 부분은 상이 뚜렷하고 진한 부분으로 남는다. 겹치지 않는 부분은 흐릿하게 보일 것이다. 골튼은 뚜렷하고 진한 부분은 평균에 가까운 것으로, 흐릿한 부분은 평균에서 멀어진 것으로 생각했다. 골튼은 평균에 가까울수록 정상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평균적인 인간 또는 정상 신체를 가진 사람을 판별하려 했다. 기본적으로 우생학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생물학적 질의 유지와 개선을 목표로 삼았다. 이는 당시 정상 개념을 주로 기능적 차원에서 정의를 내리던 의학적 접근과는 다른 것이었다. 골튼은 정규 분포를 활용하여 우생학의 과학적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를 합성 초상화를 통해 시각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인식론적 정당성과 대중적인 신뢰까지 얻으려 했던 것이다. 골튼은 합성 초상화 실험을 통해 정상 신체를 가진 평균적인 인간 종을 유형화(타이프)하고 이를 범주화하면서, 그런 유형에 가까운 사람들의 출산은 장려하고, 반대로 벗어난 사람들의 출산은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9)] 이

는 다음을 참조하라. 스티븐 제이 굴드, 김동광 옮김, 『인간에 대한 오해』, 사회평론, 2003, 147-199쪽.

8) Galton, F., "The Possible Improvement of the Human Breed under the existing conditions of law and sentiment," *Essays in Eugenics*, Eugenics Education Society, 1909, pp. 24-26.

9) 골튼의 합성초상화 실험과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라. Galton, F., "Composite Portraits, Made by Combining Those of Many Different

www.kci.go.kr

로써 확률과 시각적인 이미지에 기초한 정상이라는 개념과 이를 바탕으로 성립한 과학으로서의 우생학은 보다 손쉽게 지적 엘리트와 대중들의 심상과 당대의 문화적 흐름 속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었다.

골튼은 인간 종의 생물학적 유전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10] 골튼은 정규 분포를 활용하여 다양한 인간 특질의 기초와 생물학적 유전의 패턴을 계산하려했다. 골튼은 분산이 평균으로 회귀할 것으로 상정하고, 그렇다면 생물학적 진화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고, 이는 조절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이른바 조상 회귀의 법칙(회귀분석, regression analysis)으로 귀결되었다. 쉽게 말해, 자손의 생물학적 특질(가령 키와 같은)은 부모의 그것에 비해 전체 평균으로 되돌아가려는 경향, 즉 평균으로 회귀할 것이다.[11] 이제 인간 종의 생물학적 특질은 확률과 통계, 즉 숫자와 법칙으로 설명 가능한 것이 되었고, 이는 우생학이 객관적인 과학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골튼이 통계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발견한 회귀분석은 19세기까지 일반적이었던 규칙과 보편법칙에 의해 지배당하는 자연이라는 관념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골튼은 우생학 창안 초기에 벨기에 사람인 케틀레(Adolph Quetelet, 1796–1874)의 방식을 따랐다. 당시 케틀레는 스코틀랜드 병사의 신체 치수를 조사하고 이를 정규분포로 설명했었다. 그 바탕에는 결정론적 인식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물론 정규분포는 다수의 미세한 독립적인 원인들의 산물이라는 주장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튼은 인간의 정신 능력과 같은 생물

Persons Into a Single Figure," *The Journal of the Anthropological Institute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Vol. 8, 1879, pp. 132–144; Idem, *Inquiries into Human Faculty and Its Development*, London: Macmillan, 1883, pp. 6–13.

10) Galton, F., *Essays in Eugenics*, p. 33, p. 38, & p. 81.

11) Galton, F., *Hereditary Genius: An Inquiry into its Laws and Consequences*, London: Macmillan, 1869, xvii–xviii.

www.kci.go.kr

학적 특질을 정규분포를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골튼은 자신이 고안한 구슬 낙하 기계인 퀑컹크스를 통해서 수많은 형질들이 보여주는 정규분포를 (a) 현상을 설명하는 능력이 있는 동시에, (b) 독립적인 사소한 원인들을 배제시키는, 즉 자율성을 지닌 통계적 법칙으로 간주했다. 골튼은 정규분포가 보여주는 오차의 법칙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우연과 규칙성이 지니는 불가분의 관계를 파악했다.[12] 이언 해킹(Ian Hacking, 1936-)은 이를 우연이 길들여지기 시작했다고 표현한다. 해킹의 주장을 잠시 살펴보자. 20세기 물리학에서 가장 중대한 개념적 사건은 세계가 결정론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형이상학의 오랜 보루였던 인과율은 붕괴되었거나 적어도 약화되었다. 결정론의 퇴색이 즉각적으로 거대한 변화를 몰고 온 것은 아니었으나, 사람과 그들의 기질이 계량화되고, 사회는 점점 통계로 설명되고 이해되기 시작했다. 즉 자연 법칙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법칙이 등장한 것이다. 이 새로운 유형의 법칙은 통계학적 확률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법칙들은 정상과 표준(norm)으로부터의 일탈(deviation)이라는 개념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계몽시대 심리학이 다룬 주요 개념은 인간 본성이었다. 이는 19세기말에 이르면 정상 인간(normal people)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된다.[13] 정상인간, 그것을 회귀분석, 즉 확률로 보여준 것이 바로 골튼이었다.

이는 얼핏 보면 모순적이지만, 비결정론적인 여지, 즉 우연이 증가하면 그만큼 통제할 수 있는 범위도 커진다는 것이 해킹의 주장이다. 양자물리학은 자연이 근본적으로 환원 불가능하게 확률적이라는 점에 기초하

12) 이언 해킹, 정혜경 옮김, 『우연을 길들이다: 통계는 어떻게 우연을 과학으로 만들었는가?』, 바다출판사, 2012, 12쪽 (I. Hacking, *The Taming of Ch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13) 이언 해킹, 『우연을 길들이다』, 21-22쪽.

www.kci.go.kr

고 있다. 이는 자연에 대해 인간이 개입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무한하게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제 통계, 즉 활자화된 숫자들이 인간과 사회를 설명하고, 이는 새로운 분류, 계량화 기술, 그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권위와 연속성을 지닌 새로운 관료제,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삼는 국가에 의해 인간은 통제되고 조절될 것이었다. 19세기 관료제 국가에서 징세와 징병제도가 실시된 것은 이를 예증한다. 이제 관료제 국가에서는 인구 집단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조절하기 위해 사람들에 대해 집계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를 위해서는 이들을 알맞게 분류할 수 있는 유형 또는 범주가 만들어져야 했다.[14] 인간과 관련한 모든 것이 숫자로 표현되고, 법칙성을 띤 규칙성은 자살, 범죄, 방탕, 정신이상, 매춘, 질병과 같은 일탈행위에도 적용되었다. 이제 자연은 물론이고 인간-사회 모든 것들이 계량화로 설명되어졌다. 요컨대 맬서스의 인구 담론에서도 볼 수 있는 정량적인 근대 과학의 특징인 숫자들의 쇄도, 결정론의 퇴색, 그리고 정상 개념의 발명은 상호 연결된 것이었다.[15] 이런 점에서 골튼이 통계학적 방법론을 인간 측정과 범주화에 활용한 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획기적이고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우생학은 덕분에 과학으로서의 인식론적 정당성을 수월하게 담보할 수 있었다. 더욱이 우생학은 당대의 첨단 생물과학에도 바탕을 두고 있었기에 그것을 단순히 사이비 과학(pseudo science)으로서만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우생학은 이른바 쿤(T. H. Kuhn, 1922-1996)식 사료읽기가 요구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었다.[16]

14) 이언 해킹, 『우연을 길들이다』, 23-26쪽.

15) 이언 해킹, 『우연을 길들이다』, 28-29쪽.

16) 쿤(T.H.Kuhn)은 과거의 사료들을 대할 때, 현재 우리의 인식론적, 형이상학적 가정과는 다른 것에 바탕을 두고 종종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저술되었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한 바 있다. 동일한 용어라도 서로 다른 과학적·문화적 상황에서는 다른 의미와 방식으로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쿤은 과학기술과 관련한 역사적 접근에서는 지성사적 방법론이 유효하다고 본

www.kci.go.kr

Ⅲ. 정상 신체, 지능, 집단, 그리고 우생학

골튼이 상정한 우생학의 목표는 정상 신체를 가진 사람들의 생물학적 질의 유지와 그것의 개선에 있었다. 이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정상에 대한 이해 방식과는 사뭇 다른 지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상성의 개념을 사회와 정치 영역에 적용한 콩트(Isidore Marie Auguste Comte, 1798-1857)는 정상을 우리가 노력하여 달성하고 에너지를 바쳐야 할 정화된 상태로 규정하고, 정상 상태는 사회 진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이것이 생물학으로 이전되면, 정상 상태란 생물학이 지향해야 하는 상태, 그리고 충분한 진보를 통해 생물학이 달성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 뒤르켐(Emile Durkheim, 1858-1917)은 정상이란 옳은 것을 의미하고, 정상은 현상 유지나 현상으로의 회귀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골튼은 달랐다. 골튼은 정상은 단지 평균에 불과하며, 정상에는 개선이 가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뒤르켐은 정상으로부터의 이탈을 질병이라고 불렀던 반면, 골튼은 탁월함이란 정규분포의 한쪽 극단에 위치하는 인간 능력이라고 보았다. 콩트와 뒤르켐의 경우, 정상은 우리가 추구해야할 무엇이었지만, 골튼에게 중요한 것은 평균의 개선이었다. 이것이 생물에 적용되면 우생학으로 변모한다. 달리 말해, 콩트와 뒤르켐이 되돌아가야만 할 정상을 상정했다면, 골튼은 우리 또는 인류가 도달해야할 완전성을 획득한 목표로서의 정상을 꿈꾸었던 것이다.[17] 골튼에게 우생학은 그 꿈을 이루게 할 수단이었다. 골튼은 통계와 숫자를 활용한 우생학이야말로 우월한 혈통이나 인종을 판별하는데 좋은 과학이자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토머스 S. 쿤, 김명자·홍성욱 옮김, 「서론: 역사의 역할」, 『과학혁명의 구조』, 까치, 2013, 61-72쪽.

17) 이언 해킹, 『우연을 길들이다』, 335-337쪽.

www.kci.go.kr

방법론일 수 있고, 그런 혈통이나 인종의 개선을 위해 과학자들이 우생학을 적극 활용한다면, 이것은 국가 효율과 사회 진보의 측면에서 매우 유리할 것이른 것을 의심하지 않았었다.[18] 이제 정상이란 개념은 인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많은 것들, 이를 테면 건강, 운명, 사회적 지위 등과 관련되기 시작했고, 정상이란 단어는 20세기 접어들어 가장 강력한 과학적·이념적·문화적 도구의 하나로 부상했다. 이를 추동한 것이 바로 골튼의 우생학이었다.

골튼이 정규 분포와 정상 개념을 바탕으로 우생학을 창안하고 대중화시킨 이후, 미국을 비롯한 독일 등 서구 유럽국가에서는 생물학적 정상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자신들의 이상적인 전략에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정상의 양적 개념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고, 이에 대한 법적 적용과 배제 실행을 하는 근거로 기능했다. 이 과정에서 이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강력한 힘을 행사한 것이 바로 지능(intelligence)이었다. 골튼의 우생학 관련 첫 저작의 제목이 『유전적 천재』(*Hereditary Genius*, 1869)인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골튼은 지능도 유전된다는 가정 하에서 적절한 데이터만 주어진다면, 통계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천재에 대한 유전 법칙도 발견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19]

20세기 전반 비네(Alfred Binet, 1857-1911)와 시몽(Théodore Simon, 1873-1961)에 의해 창안된 지능 테스트가 우생학자들은 물론이고, 대중 및 국가 정책 입안자에게 각광을 받았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물론 지능 테스트를 처음 창안한 비네와 시몽이 이를 예상하거나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비네는 과연 학교 교사들이 정상과 비정상을 판가름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가 여부에 의구심을 갖고 있었고. 학생의 경우는 의

18) Galton, F., *Inquiries into Human Faculty and Its Development*, pp. 33-38.
19) Galton, F., *Hereditary Genius: An Inquiry into its Laws and Consequences*, pp. 1-5.

www.kci.go.kr

료적으로 범주화된 정상과 비정상과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다.[20] 천치(idiot)는 선천성이 있어 의료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 있지만, 맹농(blind & deaf)의 경우라면 교육 방법을 달리함으로써 학습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비네는 판단했었다. 더군다나 학교에서 비정상으로 범주화된 학생들의 경우, 그것이 과연 지능과 절대적인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비네는 회의적이었다. 그것을 입증할만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정상 학생의 경우, 어느 정도의 지능이 필요한지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21] 다만 비정상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는 교사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학업이 3년 정도 뒤쳐져 있는 학생들로 봤었다.[22] 결과적으로 지능테스트는 비네와 의도와는 달리, 아는 바와 같이, 후일, 특히 미국에서 우생학을 정당화하고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기능했다. 이들은 정신박약(feebleminded)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도덕이나 규범에서 벗어난 지닌 사람들을 지능 테스트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여 병리화하고, 범죄화하기도 했다. 우생론자인 고더드(H. H. Goddard, 1866-1957)는 비네 척도를 활용하여 선천적 지능을 물화(정량적인 실체로 표현)했고, 터먼(L. M. Terman, 1877-1956)은 스탠퍼드-비네 척도(stanford-Binet scale)를 개발해서 IQ 점수와 직업의 상관관계를 주장했으며, 여크스(R. M. Yerkes, 1876-1956)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175만명에 달하는 육군 병사들의 지능을 테스트하고, 이는 후일 1924년 이민제한법(Immigration Restriction Act) 제정의 주요한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다.[23]

---

20) Binet, A., *Abnormal Children. Guide for the Admission of Abnormal Children into Advanced Classes*, Paris: Colin., 1907, pp. 6-7.

21) Binet, A. and Simon, T.,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ce in Children," *The Psychological Year* 14, 1907, p. 85.

22) Binet, A. and Simon, T.,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ce in Children*, p. 75.

23)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라. 스티븐 제이 굴드, 『인간에 대한

www.kci.go.kr

한편, 골튼은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유효한 데이터가 필요했고, 이는 가족-가계 연구(family-genealogy study)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족이나 친족의 계보는 가장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지능의 패턴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집단이었기 때문이었다. 미국 우생학 운동을 주도했던 우생학 기록 사무국(ERO)이 광범위한 가족-가계 데이터를 수집하고, 1920년대의 우량아 선발대회나 우량 가족 콘테스트를 시행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당시 우생학 기록 사무국은 집단주의적 사고에 기초한 우생학 운동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조직이었다. 이 사무국은 우생학 아카이브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미국인 가정의 특질에 대한 분석적 지표 구축, 우생학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 조사자 교육, 우생학자 및 우생학 관련 연구소와의 협력체계 구축, 인간 특질에 대한 세부적인 유전 메커니즘 연구, 우생학적으로 적합한 결혼 상담, 그리고 연구 결과의 출판 등을 활동목표로 상정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었다.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이 사무국에서는 현장 조사자들에게 인간 유전학의 원리를 교육시키고, 광범위한 가계 정보 습득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시켰다. 현장 조사자들에 의해 정리된 미국인들의 가계 자료는 이후 전개되는 우생학의 대중화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해주었고, 후일 미국 우생 입법(혼인 금지법, 이민제한법, 강제 불임화 수술법)의 제정에도 설득력이 있는 입증 자료로 활용되었다.[24] 이후 우생학의 중심에 있었던 가족-가계는 시대적 상황이나 각 나라의 여건에 따라 계급-인종-성과 젠더-장애인-국가로 확장되어 갔고, 이는 개인을 넘어 집단 전체에 대한 선택과 배제의 원

오해』, 253-382쪽.

24) Wilson, Philip K., "Harry Laughlin's Eugenic Crusade to Control the 'Socially Inadequate' in Progressive Era America," *Patterns of Prejudice* 36, 2002, pp. 53-54; 김호연, 「미국 우생학 운동의 형성과 사회적 영향, 1900-1940」, 『미국사연구』 16, 2002, 133-157쪽.

www.kci.go.kr

리를 구사하며 불평등의 역사를 과학의 이름으로 정당화했다.

Ⅳ. 우생학, 정상 신체, 그리고 성(性)

우생학의 핵심 목표는 건강한 생물학적 질을 가진 정상 신체의 재생산(생식)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를 담당하는 가족-가계 문제는 우생학 탄생부터 줄곧 주요한 사안이었다. 가족-가계에 대한 우생학자들의 초점의 바탕에는 성 정체성과 규범적인 섹슈얼리티에 대한 편견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를 잘 볼 수 있는 사례가 동성애에 대한 우생학적 조치(결혼 금지나 강제 불임)였다. 우생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생식이나 결혼에 대해서 남성(정자)과 여성(출산과 모성, 양육)의 역할을 구분하는 양성/이성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었다. 한편, 우생학은 도덕-정신박약-매춘 등과의 연결 고리 속에서 논의되기 때문에 결혼이나 생식의 순수성과 연관하여 생각하기 쉽다.[25] 하지만 역설적으로 에로틱한 측면의 논의와도 쉽사리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었다.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적격한 여성의 경우라면, 자신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성적 만족은 중요한 사안이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표적인 응용 우생론자인 폴 포페노(Paul Popenoe, 1888-1979)는 백인 중산 계급의 부부 상담을 통한 가족 우생학에 공을 들였었다. 그는 남성과 여성의 해부학적 차이가 젠더 정체성이나 성적 표현과 역할을 결정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가부장적인 남성성과 수동적인 여성이라는 구도에서 부부나 가족 관계를 고찰하고, 우생학을 여기에 적용

25) 김호연, 「미국의 우생학과 섹슈얼리티 관리, 1870년대-1910년대」, 『미국사연구』 42, 2015, 79-105쪽.

www.kci.go.kr

했다.[26]

이와 같은 성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골튼이 제시한 정상 개념과 연동되어 역사 속에서 펼쳐진 우생학적 실행의 주요한 기초 가운데 하나였다. 주지하다시피, 20세기 전반기 우생학은 활용된 국가의 상황이나 문화적 흐름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세계적 운동으로서의 우생학을 단일한 주제나 시선으로 살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지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성(또는 젠더)이라는 주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우생학의 목표가 정상 신체를 가진 사람들의 생물학적 질 유지와 개선이었던 만큼, 이는 필연적으로 생식 문제와 연동할 수밖에 없었다. 즉, 성과 관련한 문제는 다양한 성격의 우생학이 공통적으로 주목했던 사안이었고, 이 때문에 성은 우생학의 본질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분석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우생학과 연관된 성이나 젠더의 문제를 그리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이 수월하지만은 않다. 이는 각 나라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성 관련 문제에 접근했고, 여성과 남성의 입장도 다르며, 성이나 젠더의 경우 여성이나 남성 모두에게 양가적인 측면을 갖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여성의 경우는 생식에 대한 자유로운 권리와 출산 부담을 져야하는 모성 사이의 긴장이 있었고, 중산 계급이거나 지적 역량이 있는 페미니스트는 우생학에 우호적이었지만 매춘부나 미혼모처럼 도덕적 결함을 지닌 존재로 규정되어 결혼 제한이나 강제 불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도 있었다. 남성 역시 이상적인 남성상에 대한 바람과 그렇지 못한 남성에 대한 강제 불임이나 결혼 제한

26) Ladd-Taylor, Molly, "Eugenics, Sterilization, and Modern Marriage in the USA: The Strange Career of Paul Popenoe," *Gender and History* 13, no. 2, 2001, pp. 298-327; 포페노의 좀 더 자세한 우생학 입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Popenoe, Paul, *Applied Eugenics*,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18.

www.kci.go.kr

을 당해야하는 남성이라는 대립이항적인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성에 관계없이 동성애의 경우는 우생학의 유전주의가 그들의 상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으나, 도덕성의 측면에서는(특히 나치 이후) 우생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식되어 필연적으로 제거될 운명에 처한 대표적인 대상이었다. 더하여, 여성과 남성이라는 생물학적 표지에 인종이나 계급, 장애의 문제가 결부되면 이는 더더욱 복잡한 양상을 띨 수밖에 없었다.[27]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이나 젠더의 문제는 우생학이 기본적으로 생식과 관련한 것이고, 이는 정상 신체를 얻으려는 건강 문제와 착종되어 국가를 구성하는 인구 전체의 생물학적 질을 결정하는 핵심 사안이자 그 출발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먼저 여성을 살펴보자. 우생학-성의 연결 고리 속에서 여성은 매우 양가적인 입장과 대조적인 처지에 놓이는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영국 우생운동을 주도했던 우생학 교육 협회의 구성원은 대부분 중산계급 여성이었고, 미국 콜드 스프링 하버의 우생학 기록 사무국에서 진행된 가계 조사 활동이나 건강 가족 경연 대회를 주도했던 것도 여성이었다. 강제 불임 수술의 주된 피해자 역시 대부분 여성, 특히 정신박약(feebleminded) 여성이나 성적으로 부도덕하다고 규정된 여성이었다.[28] 강제 불임 수술법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캐리 벅(Carrie Buck) 판결을 보라.[29] 중산 계급 여성은 가족과 국가의 질적 고양을 담당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매료되었고,

27) Beasley, Chris, *Gender and Sexuality: Critical Theories, Critical Thinkers*, London: Sage, 2005; Stern, Alexandra Minna, *Gender and Sexuality: A Global Tour and Compass*, Bashford, A. and Levine, P. 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History of Eugen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 174.

28) 김호연, 『유전의 정치학, 우생학』, 108-114쪽, 155-156쪽, & 178-179쪽.

29) U. S. Supreme Court, "Buck v. Bell," *Supreme Court Reporter* 47 (1927), pp. 584-585.

www.kci.go.kr

페미니스트 여성은 생식권의 획득에 관심이 많았다. 영국 노동당의 여성 노동자들도 일부이기는 하지만, 생식권 자유를 외치면서 우생학적 피임이나 자발적인 불임 수술과 낙태에도 찬성하는 활동을 펼쳤었다.[30] 이는 생식이나 양육이 자신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한 조건이고, 여성들이 생식이나 양육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사회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반면에 여성은 생식에 책임이 있는 존재로서 성을 순수하게 유지하고 건강을 책임져야하는 존재이기도 했다. 그렇지 못한 여성의 경우는 우생학적 조치의 표적이 될 것이었다.

페미니즘과 관련해서도 복잡한 측면이 있다. 여성 참정권이나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하게 획득하지 못했던 시절에 우생학은 여성의 그것을 실현하는 더없이 좋은 수단으로 일부 페미니스트에게 수용되었다. 잘 알려진 마가렛 생어(Margaret Sanger, 1879-1966),[31] 사라 그랜드(Sarah Grand, 1853-1943), 올리브 슈라이너(Olive Schreiner, 1855-1920), 그리고 빅토리아 우드홀(Victoria Woodhall, 1838-1927)과 같은 페미니스트들은 사회 운동으로서 우생학의 해방적 잠재력을 이용했다. 우리에게는 영국과 미국의 몇몇 페미니스트 여성 우생학자들만 알려져 있지만, 우생학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 해방의 플랫폼 형성에 큰 자극을 주었다.[32] 그렇지만, 모든 여성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우생학을 정책적으로 활용한 모든 국가에서 매춘부나 과잉 성애자로 판단된 여성은 오히려 권리를 박탈당하는 존재에 불과했다. 주지하다시피, 느슨한 개념

30) Redvaldsen, David, "Eugenics, Socialists and the Labour Movement in Britain, 1865-1940," *Historical Research* 90, Issue 250, 2017, p. 785.

31) Franks, Angela, *Margaret Sanger's Eugenic Legacy: The Control of Female Fertility*, New York: McFarland, 2005.

32) Allen, Ann Taylor, "Feminism and Eugenics in Germany and Britain, 1900-1940: A Comparative Perspective," *German Studies Review* 23, no. 3, 2000, pp. 477-505.

www.kci.go.kr

일 수밖에 없는 정신박약의 범주에 가장 많이 포함된 존재가 여성이었고, 성과 도덕이 연관된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지속적인 성병 검사를 포함한 도덕적·의학적 감시의 대상이었다. 캐리 벅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결손 가정의 구성원이거나 교육 수준이 낮은 소녀나 여성도 강제 불임의 주요한 표적이었다. 당시 정신박약은 타락한 존재의 상징이었고, 그런 여성이야말로 부도덕한 존재로서 건강한 아동의 출산이나 양육, 궁극적으로는 국가 적합성 달성에 방해가 되는 대상들이었기 때문이었다.[33]

우생학을 옹호했던 중간 계급 또는 페미니즘 지지자들은 적합한(fit) 자신과 부적합한(unfit) 것으로 간주되는 여성들 사이에 굵은 선을 긋고,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와 권위를 향상시키고 다른 편으로는 '우리'와 '그들'이라는 구도 속에서 부적합한 여성들을 타자화했던 측면도 있다. 마가렛 생어가 피임을 강조한 것은 우리의 생식권 보호이기도 했지만, 그들, 즉 생물학적으로 열등하다고 자신이 생각하는 일부 노동 계급, 이민자, 소수 인종의 출생률을 낮추려는 열망도 내포하고 있었다. 당시 우생학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중산계급-백인-전문직 여성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었고, 이들 가운데는 20세기 초 매춘을 규제하기 위한 공간 및 의료 규제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여성들도 많았다.[34] 이런 점에서 우생학과 페미니즘, 모성, 성별 내 차이(젠더)의 정치 사이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사안별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

33) 미국에서 이루어진 혼인 제한이나 강제 불임을 위한 입법을 살펴보면, 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다음을 참조하라. Gould, Stephen Jay, "Carrie Buck's Daughter," *The Flamingo's Smile: Reflection in Natural History*, W. W. Norton, 1985, pp. 306-318; Smith, Jesse S., "*Marriage, Sterilization and Commitment Laws Aimed at Decreasing Mental Deficiency," Journal of Criminal Law* 5, 1914, pp. 364-366; Laughlin, Harry H., *Legal,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Aspects of Sterilization* - Bulletin No. 10B, ERO, 1913, pp. 144-145.

34) Stern, Alexandra Minna, *Gender and Sexuality*, p. 176.

www.kci.go.kr

한편, 우생학이 유행하던 당시 그것을 주도했던 것은 남성들이었다. 남성의 경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생학의 전제, 즉 더 많이 번식해야 하는 건전한 중산층 여성(포지티브 우생학)과 출산 능력을 줄여야 하는 타락한 하층 여성(네거티브 우생학)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남성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인식을 갖고 있었을 수밖에 없다. 남성 우생학 옹호자들 가운데는 자신들이 속한 가계의 우수성을 표준(정상-적합)으로 삼고, 알코올 중독자, 범죄자 또는 성 일탈자와 같은 도덕적 결함자, 하층 노동 계급, 이민자에 속하는 남성을 비판적으로 보았다. 골튼 역시 우생학 창안 당시부터 그러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미국 우생학 기록 사무국의 기관지라 할 수 있는 Eugenical News일 것이다. 이 저널의 초창기에는 위대한 백인 조상의 가계도를 정기적인 특집으로 다루었었다.[35] 이는 정확히 골튼이 우생학적 사고를 처음 개진할 당시의 입장을 그대로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1865년 처음으로 우생학적 사고를 개진했던 골튼의 핵심적인 주장은 인간의 사회적 성공 능력은 불평등하고, 이는 유전이 원인이며, 따라서 이 불평등은 영속적이라는 것이었다. 이런 가정에서 골튼은 1453년-1853년 사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성들 가운데 605명의 전기를 분석하여 대략 6명 가운데 1명꼴로 친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삼았었다.[36] 아울러 골튼은 동전의 양면처럼 열등성을 표현하는 알코올 중독이나 성욕, 빈곤, 폭력성, 범죄성, 그리고 사기 등과 같은 인간의 행동적 특성도 유전되어 영속한다는 주장을 내세웠었다.[37]

이와 같은 남성 주도적인 우생학 운동의 상징적인 한 사례는 그레이

35) Eugenic Records Office, *Eugenical News* 1, July 1916 & August 1916.
36) Galton, F., "Hereditary Talent and Character," *Maxmillan's Magazine* 12, 1865, pp. 157-166 & pp. 318-327, esp. p. 159, p. 161, & p. 163,
37) Galton, F., *Hereditary Talent and Character,* p. 320.

www.kci.go.kr

엄(Robert Graham, 1906-1997)이 캘리포니아 에스콘디도(Escondido, San Diego County)에 설립한 정자은행(Repository for Germinal Choice, 1980-1999)일 것이다. 이는 미국 최초의 정자은행인데, 1970년대 이후 발전한 유전자 재조합 기술 등 일련의 생명 공학 기술을 활용하여 남성성에 대한 오래된 믿음(환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은 생식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믿음을 현실화했고,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한 엘리트 남성의 정자를 수집하여 그들의 유전자를 확산하려는 기획의 산물이었다. 이 은행의 처음 명칭은 미국의 유전학자로 노벨상을 수상하고 러시아로 건너가 우생학적 연구를 수행했던 멀러(Hermann Joseph Muller, 1890-1967)의 이름을 땄었고, 노벨상 수상자이면서 인종차별주의자이기도 했던 우생론자 윌리엄 쇼클리(William Shockley, 1910-1989)가 자신의 정액을 시설에 기증했다고도 했지만 실제로 노벨상 수상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출생한 아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8] 이 은행은 그레이엄이 사망하면서 문을 닫았지만, 그의 유산은 잘난 태생과 남성성을 연결하는 정자은행 논의의 시발점이었고, 이러한 시도는 일면 줄리안 헉슬리 (Julian Huxley, 1887-1975)가 주창한 트랜스 휴머니즘(trans humanism)이라는 오늘날의 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래전 헉슬리는 트랜스휴머니즘을 이렇게 정의했다. "만일 원한다면 인류는 자신을 초월할 수 있다. 한 방편으로는 한 개인이, 다른 방편으로는 또 다른 개인이 자신을 초월할 수 있지만, 인류 전체가 그 자신을 초월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런 새로운 믿음에 이름을 부여해야 한다. 아마 트랜스휴머니즘이 적절할 것이다. 인간은 인간으로 남아 있겠지만, 인간 본성을 구현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함으로

38)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Plotz, David, *The Genius Factory: The Curious History of the Nobel Sperm Bank*, New York: Random House, 2006.

www.kci.go.kr

써 자신을 초월할 것이다."[39] 오늘날 트랜스 휴머니즘 옹호자들은 재생의학이나 신경과학을 활용하여 퇴화 억제는 물론이고, 더 똑똑하고 더 건강하고 더 강한 인간을 만들려는 기대를 적극적으로 발현하고 있다. 이는 닉 보스트롬(N. Bostrom)이 주장한 포스트 휴먼(posthuman), 즉 기본적인 능력(특히 건강수명, 인지, 감정)이 현재의 인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는 더 이상 인간으로 부를 수 없는 존재에 대한 희망으로 발전하고 있다.[40] 이러한 흐름은 정상성과 그것을 지닌 존재의 개선, 그리고 이를 통한 완전성의 달성이라는 과거 우생학의 목표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우생학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 생식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인종 개량을 달성하고, 이에 기초한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의 건강이 중요했고, 이는 성을 관리함으로써 달성 가능한 것이었다. 적격한 후손의 질적 수준은 바로 성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이다. 20세기 전반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는 여러 국가에서 많은 우생론자들의 열망이 성 관리를 중심으로 발현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었고, 성이나 젠더와 연동된 과거 우생학은 정상과 병리, 이성애, 및 가족 관계 연구와 관련하여 오늘날과 공명하고 있다.

V. 나오며

골튼의 합성초상화 실험에서 시작하여, 비네의 지능테스트를 거쳐 20

39) 홍성욱, 『포스트휴먼 오디세이』, 휴머니스트, 2019, 43-44쪽; Huxley, J., *New Bottles for New Wine*, London: Chatto & Windus, 1957, pp. 3-17.
40) 닉 보스트롬, 조성진 옮김, 『슈퍼 인텔리전스』, 까치, 2017.

www.kci.go.kr

세기 초반 서구에서 하나의 문화로까지 자리를 잡은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정상 신체 또는 능력이 있는 몸(able-bodiesness)이란 것을 각자의 방식과 기준에 의해 규정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존재들을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들로 낙인찍었다. 정상 또는 정상 신체(또는 건강한 몸)라는 이상화된 개념과 규정은 성-인종-이민-계급-장애-공중보건 등 인간의 실존적 조건들과 자연스레 연결되기 수월했고, 이는 최근 포스트 휴먼이나 트랜스 휴머니즘을 추구하는 생의학기술이나 그것을 활용한 자본축적(생명자본주의, bio-capitalism)의 주요한 기초로도 기능하고 있다.[41)]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전반 많은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정상 신체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했고, 이들이야말로 그 국가의 시민으로서 자격을 갖춘 존재들이라고 생각했다. 우생학은 이런 존재들을 만들어내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으나, 결국 자격을 갖추지 못한, 즉 부적격한 존재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폭력적인 도구로 기능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우생학-정상-신체를 연결하여 우리의 다양한 실존적 양태(성-장애-계급-인종 등)를 살펴보는 것은, 누가 과연 정상 신체를 가진 인간인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국가-사회의 본질과 그 모습이 어떠해야하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과정에 다름 아닐 것이다.

캉귈렘(G. Canguilhem, 1904-1995)은 비정상은 정상성의 결여가 아니고 비정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살아가는 한 가지 방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설사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을 평가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41) 맑스코뮤날레 조직위원회 엮음, 『현대자본주의와 생명』, 서울: 그린비, 2011; 카우시크 순데르 라잔, 안수진 옮김, 『생명자본』, 그린비, 2012; 힐러리 로즈·스티븐 로즈 지음, 김명진·김동광 옮김, 『유전자, 세포, 뇌』, 바다출판사, 2015.

www.kci.go.kr

육체 너머를 바라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42] 이는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것이 특정 시대를 지배하는 관계망 속에서 발현되는 가치와 규범의 반영물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여기에서 생물학적 존재인 인간을 어떤 가치와 규범에 기초하여 바라보고 있는가 또는 바라보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일일 것이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체화되었을 수 있는 정상과 비정상 그리고 이와 연결된 우월과 열등-적격과 부적격이라는 구분의 기저에 과거 우생학적 원리와 그에 기초한 사고방식이 당연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과거 우생학의 역사를 끊임없이 살펴야만 하는 이유일 것이다.

(2023.07.08. 투고 / 2023.07.27. 심사완료 / 2023.08.04. 게재확정)

42) 조르쥬 깡길렘, 여인석 옮김,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 인간사랑, 1996, 219쪽 & 250쪽.

www.kci.go.kr

[Abstract]

Normality, Eugenics, and Sex

Kim, Ho-ye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ientific conceptualization of normality based on the statistical methodology of F. Galton, the founder of eugenics, and eugenics and gender identity. With this, I would like to reflect on how the distinction between normality and pathology, and related superiority and inferiority, which are unknowingly taking place in our images here and now, is no different from the eugenics of the past, which left a trace of cruel history.

To this end, in Chapter 2, Galton's application of the normal distribution and the scientific concept of normality and its implications, in Chapter 3, the correlation between normal body, intelligence, groups, and eugenics, and in Chapter 4, sex discourse as an example of this. At the time, Galton decided that normal was just the norm, and that it needed improvement. At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eugenicists thought that in order to build the ideal country they wanted, they needed people with normal bodies suitable for it, and that these people were qualified as citizens of that country.

Eugenics was an ambitious project to give birth to these beings, but in the end, it functioned as a violent tool to exclude and discriminate against unqualified beings. Therefore, when we connect eugenics and

www.kci.go.kr

the normal body and examine our various existential aspects (gender-disability-class-race, etc.) It would be no different from the process of asking ourselves whether we are human beings. The eugenics principle and the way of thinking based on it may lie on the basis of the distinction between normal and abnormal, which may have been embodied without our knowledge. This may be why we must examine the history of eugenics here-and-now.

□ Keyword

Normal Distribution, Normality, Body, Intelligence, Group, Sex, Eugenics, Francis Galton

www.kci.go.kr

[참고문헌]

Allen, Ann Taylor. "Feminism and Eugenics in Germany and Britain, 1900–1940: A Comparative Perspective," *German Studies Review* 23, no. 3, 2000, pp. 477–505.

Baker, La Reine Helen, *Race Improvement Or Eugenics, A Little Book On A Great Subject*, N.Y.: Dodd, Mead, 1912.

Beasley, Chris, *Gender and Sexuality: Critical Theories, Critical Thinkers*, London: Sage, 2005.

Binet, A., *Abnormal Children. Guide for the Admission of Abnormal Children into Advanced Classes*, Paris: Colin., 1907.

Binet, A., and T. Simon., "The Development of Intellingence in Chidlren," *The Psychological Year* 14, 1907, pp. 1–94.

Block, Pamela. "Sexuality, Parenthood, and Cognitive Disability in Brazil," *Sexuality and Disability* 20, no. 1, 2002, pp. 7–28.

Broun, Heywood C. and Margaret Leech, *Anthony Comstock, Roundsman of the Lord*, N.Y.: Albert and Charles Boni, 1927.

Carlson, Elof Axel, *The Unfit: A History of a Bad Idea*, N.Y.: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Press, 2001.

Cowan, Ruth Schwartz, "Francis Galton's Statistical Ideas: The Influence of Eugenics," *Isis* 63, 1972, pp. 509–528.

Daggett, M. Poitter. "Women Building a Better Race." *World Work* 25, 1912, pp. 228–234.

Dennett, Mary Ware, *Birth Control Laws: Shall We Keep Them, Change Them Or Abolish Them*, N.Y.: Frederick H. Hitchcock, 1926.

www.kci.go.kr

Eliot, Charles W. “The American Social Hygiene Association.” S*ocial Hygiene* 1, 1914, pp. 1–5.

Eugenic Records Office, *Eugenical News* 1, July 1916 & August 1916.

Franks, Angela, *Margaret Sanger's Eugenic Legacy: The Control of Female Fertility*, New York: McFarland, 2005.

Galton, F., “Composite Portraits Made by Combining Those of Many Different Persons Into a Single Figure.” *The Journal of the Anthropological Institute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Vol. 8, 1879, pp. 132–144.

Galton, F., “The Possible Improvement of the Human Breed under the existing conditions of law and sentiment,” *Essays in Eugenics*, Eugenics Education Society, 1909.

Galton, F., *Hereditary Genius: An Inquiry into its Laws and Consequences*, London: Macmillan, 1869.

Galton, F., “Hereditary Talent and Character,” *Maxmillan's Magazine* 12, 1865, pp. 157–166 & pp. 318–327.

Galton, F., *Inquiries into Human Faculty and Its Development*, London: Macmillan, 1883.

Gould, Stephen Jay, “Carrie Buck's Daughter,” *The Flamingo's Smile: Reflection in Natural History*, W. W. Norton, 1985.

Huxley, J, *New Bottles for New Wine*, London: Chatto & Windus, 1957.

Ladd-Taylor, Molly, “Eugenics, Sterilization, and Modern Marriage in the USA: The Strange Career of Paul Popenoe,” *Gender and History* 13, no. 2, 2001, pp. 298–327.

Laughlin, Harry H., *Legal,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Aspects of*

www.kci.go.kr

Sterilization – Bulletin No. 10B, ERO, 1913.

Plotz, David, T*he Genius Factory: The Curious History of the Nobel Sperm Bank,* New York: Random House, 2006.

Popenoe, Paul, *Applied Eugenics*,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18.

Redvaldsen, David, "Eugenics, socialists and the labour movement in Britain, 1865–1940," *Historical Research* 90, Issue 250, 2017.

Smith, Jesse S., "Marriage, Sterilization and Commitment Laws Aimed at Decreasing Mental Deficiency," *Journal of Criminal Law* 5, 1914.

Stern, Alexandra Minna. "Gender and Sexuality: A Global Tour and Compass," A. Bashford and P. Levine 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History of Eugen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The New York Times, October 15, 1895, 16면.

U. S. Supreme Court, "Buck v. Bell," *Supreme Court Reporter* 47, 1927, pp. 584–585.

Wilson, Philip K., "Harry Laughlin's Eugenic Crusade to Control the 'Socially Inadequate' in Progressive Era America," *Patterns of Prejudice* 36, 2002.

김호연, 「미국 우생학 운동의 형성과 사회적 영향, 1900–1940」, 『미국사연구』 16, 2002.

김호연, 「미국의 우생학과 섹슈얼리티 관리, 1870년대–1910년대」, 『미국사연구』 42, 2015.

김호연, 「서구 우생 담론의 역사 Ⅰ – 우생학(eugenics)과의 연관을 중심으로」, 『동국사학』 72, 2021.

www.kci.go.kr

김호연, 『유전의 정치학, 우생학: 강제 불임에서 나치의 대학살까지』, 단비, 2020.
김호연. 「미국의 우생학(eugenics)과 사회개혁, 1880년대-1920년대」, 『동국사학』 57, 2014.
닉 보스트롬, 조성진 옮김, 『슈퍼 인텔리전스』, 까치, 2017.
맑스코뮤날레 조직위원회 엮음, 『현대자본주의와 생명』, 그린비, 2011.
스티븐 제이 굴드, 김동광 옮김, 『인간에 대한 오해』, 사회평론, 2003.
이언 해킹, 정혜경 옮김, 『우연을 길들이다: 통계는 어떻게 우연을 과학으로 만들었는가?』, 바다출판사, 2012.
조르쥬 깡길렘, 여인석 옮김,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 인간사랑, 1996.
카우시크 순데르 라잔, 안수진 옮김, 『생명자본』, 그린비, 2012.
토머스 S. 쿤, 김명자·홍성욱 옮김, 『과학혁명의 구조』, 까치, 2013.
홍성욱, 『포스트휴먼 오디세이』, 휴머니스트, 2019.
힐러리 로즈·스티븐 로즈 지음, 김명진·김동광 옮김, 『유전자, 세포, 뇌』, 바다출판사, 2015.

www.kci.go.kr